

사회

출발 직전 점검해 보니 낡은 차에 안전벨트도 고장

“안전이 최우선” 수학여행 전격 취소

광주 미산초 소신 결정... 체육행사로 대체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임대 버스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정 돼 있던 주제탐구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전격 취소했다.

없다”고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학교 측은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학생들은 이날 학교에서 체육행사로 체험학습을 대신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 이들은 최근 강원도에서 수학여행버스 사고로 학생 41명이 다치고, 제주도에서 수학여행인솔교사가 학생을 태운 버스가 트럭과 충돌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학교의 판단에 동의했다.

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수학여행 시즌 교통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차량 수요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기를 조정·안배하고, 지역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측은 전격 취소된 주제탐구 체험학습을 6월로 연기하고 조만간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재선정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월영령 부활하소서

5·18민중항쟁에서 희생당한 영령들의 부활을 염원하는 부활제가 지난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렸다.

5·18구속부상자회원 등이 오월영령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원침 (8575) 김장두



황주홍 소환 조사 받아

민주통합당 강진·장흥·영암 선거구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황 당선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여 동안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플라스틱 공장 불 30억 피해

장성 사찰서 50대 추락사·광주서 아파트 화재

주말·휴일 사고 잇따라

5월의 마지막 주말과 휴일 여수의 한 공장서 불이 나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광양의 한 레미콘 공장서 근로자가 모래 더미에 깔려 숨지는 등 광주·전남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7일 밤 10시33분께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화양농공단지 내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8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공장 2곳의 건물 8개 동(3487㎡)이 전소되면서 합성수지 500t과 설비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난 공장은 ABS수지 1차 가공

및 완제품 생산 공장과 배수관로 등 플라스틱 완제품 생산 공장으로 내부에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불길이 급속도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소방차 30대와 소방인력 291명을 투입했으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 불로 전봇대와 전선이 불에 타면서 인근 주택가가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밤 9시59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8층 유모(46)씨의 집에서 불이나 주민 3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 26일 밤 10시6분께 광주시 북구 한 노래방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만에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후 5시께에는 광양시 성황동 로미콘공장에서 문모(43)씨가 모래에 깔려 숨졌다. 문씨는 공

장 모래 적치장에서 모래 공급이 혼합기(믹서기)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수동 작업을 하던 중 모래에 휩쓸리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사도 잇따랐다. 지난 27일 밤 10시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거제도 동방파제에서 이모(여·44)씨가 언니와 함께 산책 중 방파제 보호용 구조물인 64짜리 테트라포드(TTP) 사이로 추락어나 생명을 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6일 밤 8시13분께에는 장성군 북하면 백암사내 약사암에서 유모(여·51)씨가 1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사찰 관계자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인화학교 30대 전 교사 특채 불합격 취소 승소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최근 인화학교 전 교사 김모(여·35)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중등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김씨가 인화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으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처분을 취소하면서 인화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채용에서 애초 공고한 채용인원 5명 중 4순위에 포함됐으나 불합격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영화·도가니·파문 이후 경찰의 재수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공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만채 교육감 보석... 업무 복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지난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부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현재 교육감의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29일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은 장

교육감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쓰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25일 구속됐다.

장 교육감은 “친구가 선의로 지원하고 총장 재임시 법 테두리 내에서 쓴 업무추진비 등을 문체부 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황포돛배 선장·선원 시신 목포해경, 닷새만에 발견

지난 23일 해남 앞바다에서 예인선에 부딪혀 전복, 실종됐던 황포돛배 선장과 선원 시신이 닷새만에 발견됐다. <본보 5월 25일자 6면> 목포해양경찰은 “23일 오후 2시께

해남군 화원면 임화도 북쪽 6km 해상에서 발견한 19급 황포돛배를 인양하던 중 선실 아래서 선장 김성중(65)·선원 최충진(65)씨 등 2명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10시께 설모(57)씨가 운항하던 부산선적 160t급 예인선 S호와 충돌해 침몰·실종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서민 등친 못된 불법 사채업자

○광주경찰청은 28일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 행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사채업자 최모(33)씨 등 5명을 불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10여명에게 200만~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최대 연이율 292%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온 혐의.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노점상이나 식당 등을 하는 서민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2개월간 이자 명목 등으로 매일 4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판명.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uri Hospital auction. Title: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Includes details about the auction item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Title: 극락전 남골당. Includes text about the temple's history,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